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대학이 위기라는 말이 곧잘 오르내린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대학 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한 개별 대학의 어려움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위기의식은 “오늘날 대학 교육에 무슨 효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한다.

국가 재건을 위한 엘리트를 키워내던 60~70년대, 양질의 취업 시장이 팽창하던 80~90년대 중반까지, 대학 교육의 현실적 효용성을 의심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던 때부터 이른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전면적인 비대면 교육이 시행되면서, 대학은 효용성 높은 비대면 여타 교육 매체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다.

교육을 효용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어느 길이 옳은지가 중요하지, 애써서 현실적인 이익만을 따지느냐고 질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효용성의 열세를 상쇄하고도

답을 잘 기르는 법

남을 만큼의 대체 불가능 가치를 제시해야 할 텐데, 오늘 대학이 그럴 만한 무게와 동력을 가졌다고 선험 대답하기 어렵다.

이것이 대학이 위기라는 말이 아프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를 여는 창의적인 가치가 더 이상 대학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대학은 과거의 명성이라는 밑천이 떨어질 때까지 서서히, 어쩌면 매우 급속히 사라져갈 운명에 처한 것이다.

정약용이 둘째 아들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다. “네가 답을 기른다고 들었다. 참으로 좋은 일이다.” 아버지의 정치적 좌절로 인해 과거 시험을 볼 기회마저 단절된 아들의 입장에서는, 옳은 길을 추구해야 할 사대부 신분으로 생계의 이익을 위해 양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정약용은 아들을 칭찬하면서, 다만 이 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풀이 있는 것과 저속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변별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약용이 우선 제안한 것은 연구와 실험을 통한 개선이다. 관련 서적들을 숙독하여 좋은 기술을 도입하고, 답을 종류별로 나누어 길러 보기도 하고 시설을 다르게 만들어 보기도 하는 실험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약용은 시를 쓰라고 권했다. 닭의 상태를 매일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깊이 고민하는 과정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계에 관한 기존의 지

식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저술을 하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한다면 닭 기르는 일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고상한 풍취에 이르게 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일에서도 옳은 길을 발견하며 맑고 높은 품격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

이제까지 해 오던 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그러나 이는 어딘가에서 솟아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가에 달렸다. 오픈 인공지능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시대가 이미 왔지만, 여전히 관건은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있다. 비약이 허락된다면, 200여 년 전 궁지에 처한 아들에게 보낸 정약용의 권면에서 오늘 위기 상황 가운데 대학이 대학이어야 할 모습을 읽는다. 치밀한 독서와 개방적인 토론, 실패를 감수하는 실험과 깊이 있는 관찰, 새로운 발견과 참신한 표현 등을 익히고 배우며 품격 있는 자유를 누리는 곳.

대학에 이런 기대를 하기는 이미 늦었다는 진단도 있다. 이런 활동이 대학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만큼 이런 일을 잘 해 낼 요건을 갖춘 곳이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고 아직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은 젊은 인재들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체질을 개선 하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대학의 뼈아픈 노력,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의 전폭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학의 존속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社說

에너지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더욱 촘촘히

기록적인 한파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스·전기 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서민들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팀은 지난 주말 광주 지역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아 난방비 폭등 이후 생활상을 살펴보았다. 남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모(83) 씨는 다섯 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내복에 패딩 점퍼는 물론 목도리와 털모자로 중무장한 채 온몸을 이불로 둘러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치솟은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를 맘 놓고 틀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10년 이상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박모(72) 씨는 도시가스비를 감당하지 못해 난방을 아예 꺼 놓고 살고 있다. 대신 전기장판과 히터를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추위를 견디고 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탓에 집안의 모든 배관이 얼어 세탁기조차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도 이들의 모

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만 3392명, 차상위 계층은 3만 7684명에 이른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10만 명을 넘는 셈이다. 한데 광주의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35.8%, 전기요금은 18.4%나 올랐으니 이들의 비명 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연간 10여만 원 수준인 에너지 바우처로는 폭등한 난방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흔독한 추위가 어서 빨리 풀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난방비 대란’에 정부는 울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위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충전 전쟁’ 수소차 확대 앞서 인프라 확충부터

광주에 무공해 수소차가 늘고 있지만 충전·정비업소 등 인프라가 태부족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수소 차량은 지난 2017년 41대였으나 이후 해마다 200여 대씩 늘어 지난해 기준 1240대로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수소차를 200여 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향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수소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시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는 광산구 진곡·동곡, 남구 양암, 서구 벽진, 북구 월출·장동 버스 충전소 등 여섯 곳 뿐이다. 이 가운데 승용차 충전기는 다섯 기로, 각 충전기의 하루 수용 능력은 한 기당 차량 70여대 수준이어서 총 377대가 한계다. 충전소마저 모두 광주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있고 중심가에는 한 곳도 없다. 수소

차들이 “행들을 잡으면 충전소 걱정보다 더 든다” “충전소에 가도 매번 줄이 길게 들어서 있어 시간 낭비가 심하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다.

정비 인프라도 증가하는 수소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 시내 수소차 정비 가능 업체는 광산구 세 곳, 서구 두 곳, 남구 한 곳 등 여섯 곳 뿐이다. 수소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구동 원리 때문에 일반 정비소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데도 막상 정비할 곳은 손꼽을 정도로 소수인 셈이다.

광주시는 수소차 충전소 조성에 1500㎡ 이상의 공간과 30억 원 이상 설치비가 필요하다는 예산상의 제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미 수소·전기차 다음 달 열리는 2월 시를 이루고 있고 무공해·친환경 차량은 미래 교통·환경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이용·보급 확대를 위해 장단기 계획을 세워 수소차 관련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한 곳도 없다. 수소

청춘 특특

바이러스와 졸업



김우진 광주대 사진영상드론학과 4년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됐지만 사실상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마스크가 있어야만 모든 활동이 되는 생활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작이다.

해외에서의 확산세와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남아 있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사망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3년여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자유훈 전환하기 전까지 광주대학교도 모든 행사를 멈췄다. 몇 년 캠퍼스는 적막지만 돌아왔다. 학교 교수님

과 직원 선생님들이 매일 정문과 건물 곳곳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소독하느라 분주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학들은 서서히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이어갔다. 광주대학교는 3년 만에 개최된 대동제와 새롭게 시작한 빛 축제 덕분에 캠퍼스에는 밝고 활기찬 기운이 넘쳤다.

이제 2023학년도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학교생활에 지쳐 있던 학생들의 졸업식도 준비하고 있다. 얼마 만의 졸업식인가, 졸업을 앞둔 나는 학교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다.

혼란의 시기였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우리는 대부분 원격 수업 사이트에 올라오는 실시간 화상 강의나 녹화 강의를 들으며 수업 진도율을 맞췄다. 하지만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를 느낀 적도 있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과제가 대폭 늘어난 것도 문제였다. 또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면 수업에서의 소통보다 훨씬 못해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비대면 방식을 통한 성과도 있었다. 메타버스를 활

용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 대면 진행 시에는 부담스러웠던 상담이나 검사 등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다. 브이로그(V-LOG)와 영상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온라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실력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졸업한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이 열린다. 2023학년도 신입생들은 나와 같은 경험은 없을 것이다.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확산세가 감소한 것뿐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교 당국은 다시 코로나 시대가 올까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되도록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

졸업을 앞둔 선배로서, 후배들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싶다. 다시는 나와 같이 비대면 대학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고

위탁 실시 협동조합 선거, 축제로 승화되길



박안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경제학박사

올해는 토끼띠인 계묘년(癸卯年)으로 큰 선거가 없는 해이다. 다만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월 8일)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의 농·축협을 비롯하여 산림조합, 수협 등 1300여 개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9년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대다수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꽃이자 축제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의사 결정의 과정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한 정치하는 사립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후보자의 명예와 하나의 스펙(spec) 쌓기를 위한 선거는 더욱 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게는 몇 천 명 조합원의 자산을, 그리고 많게는 만 명 이상에 이르는 수조 원의 자산을 경영·관리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농림어업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

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경영자이자 조합원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그야말로 막중한 선거이다.

다수의 협동조합은 각자 협동조합 고유의 이념을 실현하는 운동체이며 사업체일 것이다. 협동조합의 조합장 동시 선거는 ‘선거’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형식을 빌리지만 기존의 지자체 선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확연히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난 두 차례 동시 선거에서 나타난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 학연, 혈연에 얽매인 선거가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과거 극히 일부 몰지각한 후보의 향응 등 공명하지 못했던 선거로 지역 이미지의 추락과 함께 관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랐던 좋지 못한 선례는 용납될 수 없다.

동시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현 시점에서 여러 협동조합과 선거를 주관하는 관계 당국에서는 공명 선거를 치르기 위한 행사와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미 위탁 선거법을 위반하여 고소·고발·경고 등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가장 바람직한 선거는 리더십이 탁월하고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적정 후보자를 추천해 선거를 하지 않고 무투표로 조합장을 선임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조합장을 선출할 때 이런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지금의 우리 농림어업을 잘 이해하고, 협동조합의 정의와 이념·가치,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충실한 후보였으면 한다.

둘째, 비전 제시를 통해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와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보면 좋겠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합리적이고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판단력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면 좋겠다.

넷째, 대다수 협동조합이 금융 업무인 신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춘 후보였으면 한다.

끝으로, 솔선수범하는 리더로서 지도자다운 품격을 지녀 조합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후보를 기대해 본다.

조합장 선거는 승패를 떠나 조합에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는 조합원들의 축제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후보들이 당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無等鼓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최근 나라 돌아가는 꼴을 바라보는 민심의 한탄이다. 준비된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리스크’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면충돌하면서 민심은 그야말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스비 폭탄 등 고통과, 고금리에 민생은 멎들어 가는 데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의 역할은 실종된 상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 진영을 향한 증오와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사법 살인’ ‘정적 제거’와 같은 거친 말들도 쏟아냈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 용 조차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법치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아전인수적 궤변’ ‘사법 불복’ ‘뻔뻔한 정치인’이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내놨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정적 제거용 조차 수사를 하는 검사 독재 정권에,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 진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 한데 민생을 위한 협치나 미래를 위한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생을 챙겨야 할 1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고 다음 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 전망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처분 진영을 향한 증오와 갈등을 결정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반격 카드로 이 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대선 이후 계속되는 여야의 제로섬 정쟁에 민심은 점차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권의 오만과 착각은 결국 민심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는 민심의 분노가 정치권에 죽비를 내리쳐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